

8월
둘째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란?

찬양해요 찬송가 545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12:8-12

- 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 9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
하리라
-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
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
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말씀 이해하기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어 살며, 비기독교적 문화도 그대로 수용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며 기회가 되면 복음을 나누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좀 더 생각해보기

- 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8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할 것이요

- ②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사탄에게 돌리거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10절).

성령을 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 ③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회당이나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끌려갈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1-12절)?

마땅히 을 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 ④ 진정으로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살고 있나요?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 131쪽)